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 미술의 기법인 '묵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화면은 거의 entirely black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안에서 미세한 선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듯, 혹은 바람이 스치는 순간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통해 깊은 정서와 철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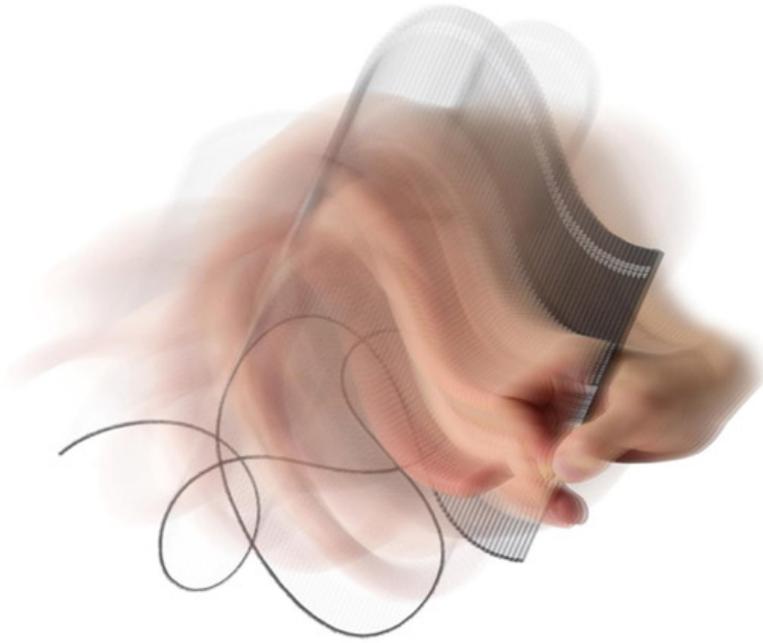
이 작품은 작가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화면의 어둠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와 움직임은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통해 깊은 정서와 철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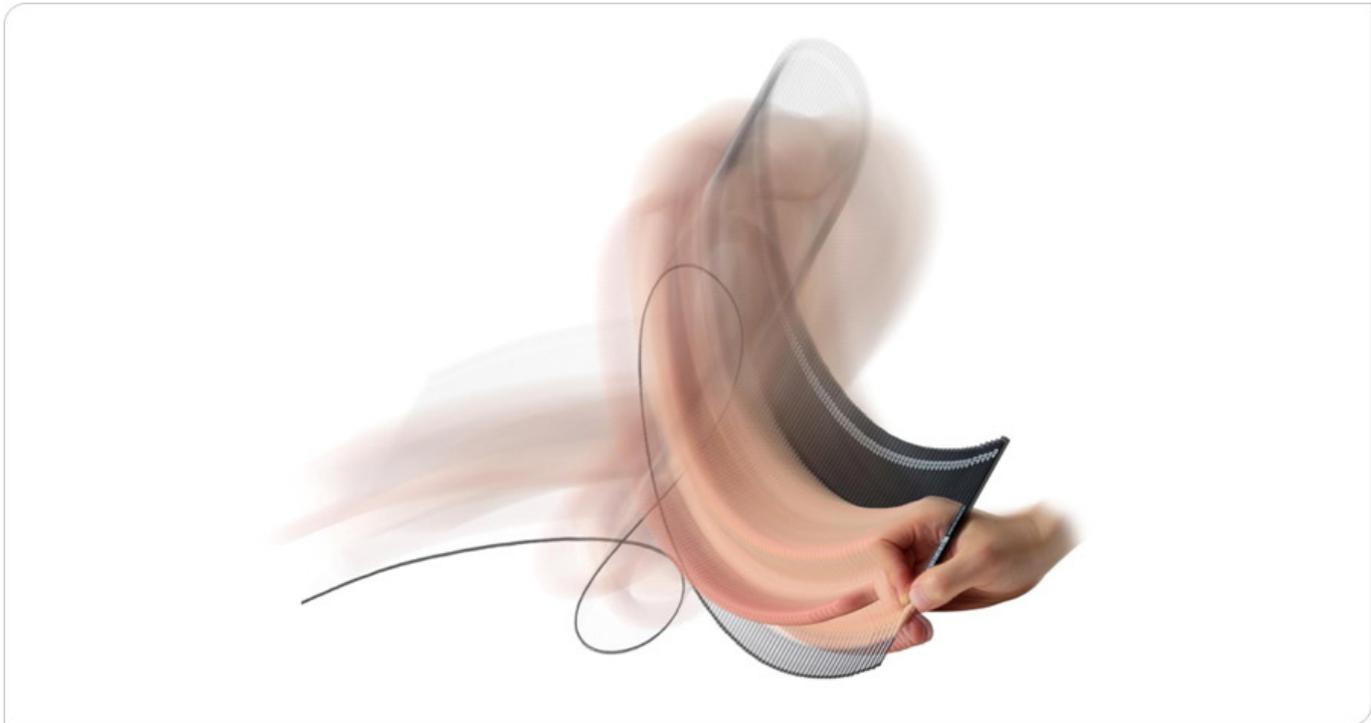
<인생-인생의 무게_70x90cm_수묵화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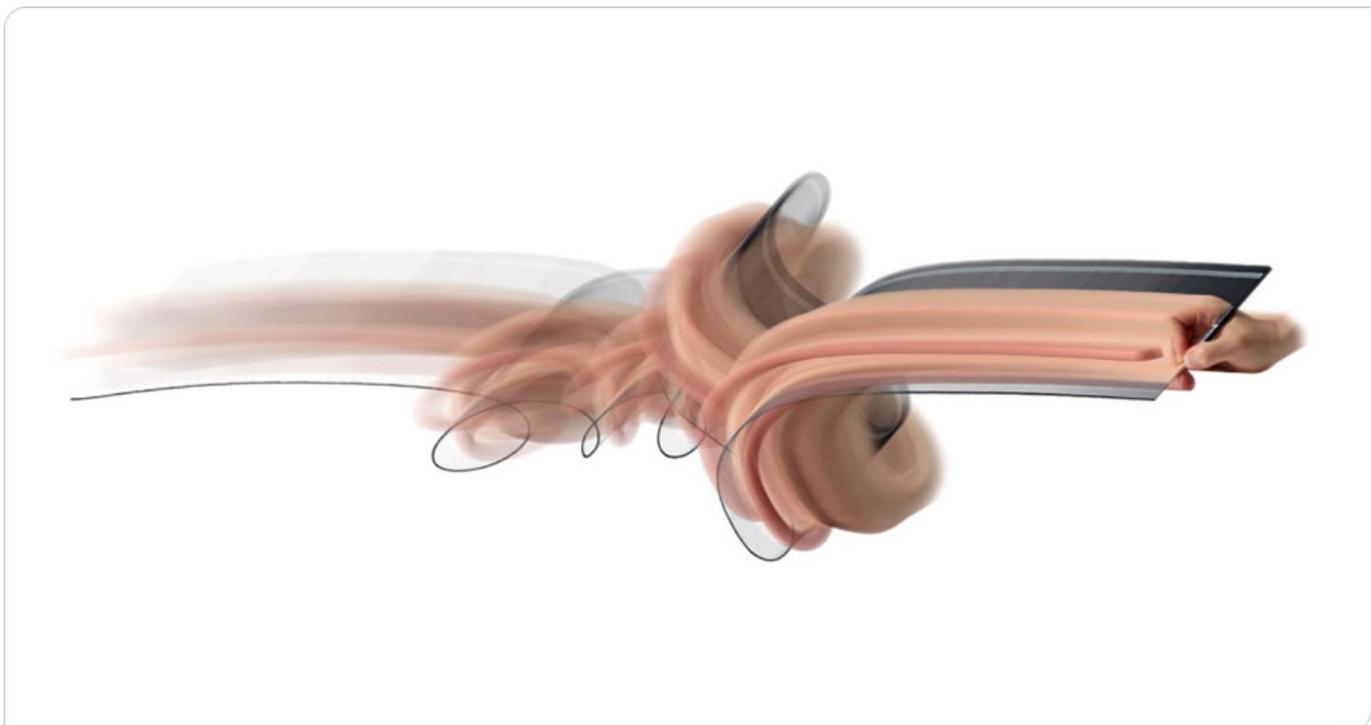
<□□□□□□□□_49×17×43cm_PVC, □□_2015>



<□□□-□□□□□□□□_85×100cm_□□□□ □□□_2015>



<□□□-□□□□□□□□_95×115cm_□□□□ □□□_2015>



<□□□-□□□□□□□□□□□□□□_120×360cm_□□□□ □□□_2015>

□□□□

